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 결과, 14명 모집에 2941명 지원

- 평균 경쟁률 231대 1→210대 1로 소폭 하락
- 일행 1718명·재경 732명·법제 491명 지원해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가 감소했지만, 평균 경쟁률이 210대 1에 달해 여전히 합격하기가 바늘구멍이다.

국회사무처는 14일 지난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94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650명, 사서직 제외)보다 709명(19.4%)이 감소한 수치다. 앞서 원서접수를 마감한 5급 공채보다 감소(7.7%) 폭이 더 컸다.

입법고시 지원자 감소도 역시 고시 신규 진입자가 줄고 로스쿨 등 다른 시험으로의 전향 탓으로 풀이된다.

직렬별로 보면 일반행정과 법제직의 지원자 감소가 큰 반면 재경직은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작았다.

일반행정은 6명 모집에 1718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2166명)보다 448명(20.7%)이 감소한 수치다. 이에 따라 경쟁률도 316대 1에서 286.3대 1로 떨어졌다. 올해 선발인원이 2명으로 준 법제직은 491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는 지난해(637명)보다 22.9%(146명) 감소했지만, 선발인원 감소로 인해 경쟁률은 212대 1에서 245.5대 1로 오히려 올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재경직은 변동 폭이 크지 않았다. 올해 6명 선발에 732명이 지원했으며 지난해(847명)보다 13.6%(115명) 감소에 그쳤다. 경쟁률도 141대 1에서 122대 1로 소폭 떨어졌다. 올해 입법고시 제1차시험은 5급 공채보다 2주 후에 치러지므로 응시율은 더욱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5급 공채보다 늦게 시행한 입법고시 응시율은 전년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총 응시대상자 3701명 중 응시자는 2432명으로

평균 65.7%였다. 이는 전년도(58.3%)보다 무려 7.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직렬별 응시율은 일반행정의 경우 2166명의 지원자 중 1463명이 응시해 67.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전년도(59.4%)보다 무려 8.1%포인트 증가했다. 재경직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지원자 847명 중 599명이 응시해 70.7%의 높은 응시율을 나타냈으며 전년도(64.4%)보다 6.3%포인트 증가했다. 법제직도 대폭 올랐다. 지원자 637명 중 341명이 응시해 53.5%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전년도(44.8%)보다 8.7%포인트 증가했다.

입법고시에 응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과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등록기간에만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영어 성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서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인 3월 11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이 시험 성적에 한해 인정되며 영어 점수는 1차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제출 기간과 인정기간도 영어와 동일하다. 기준 점수는 2급 이상이며 원서접수 시 해당 시험일장,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1차 필기시험은 3월 12일 실시되며 1차 장소는 3월 4일 공고된다. 합격자는 4월 8일 발표한다. 이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시험을 시행하고 7월 15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7월 26일부터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7월 29일 공개한다.

2022년 제38회 입시 원서접수 현황

구분	선발예정인원		접수인원		경쟁률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일반행정	6	6	1,718	2,166	286.3:1	316:1
법제	2	3	491	637	245.5:1	212:1
재경	6	6	732	847	122:1	141:1
사서	미실시	1	미실시	51	미실시	51:1
합계	14	16	2,941	3,701	210:1	231:1

(출처/법률저널)